

산림행정 뒷걸음 치려는가

—행개위의 산림청
폐지론을 반대한다—

이 용 한 / 모범독립가

1. 머리말

최근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기구 조직을 일부 통폐합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가운데 산림청이 폐지되고 농림수산부의 내국으로 흡수통합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많은 임업인들이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 농림부 내국으로 있는지 만22여년만에 재복귀하는 셈인데 오늘날 모든 행정이 고도산업화에 따른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는 복잡다기화 되고 전문성을 필요로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산림행정 조직만이 20여년전의 60년대 조직으로 환원한다는것은 산림청의 존재 당위론을 따지기 이전에 일반적인 추세와 흐름도 모르는 경악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자체는 임업의 실상을 전연 모르거나 도외시 하지 않고서는 나올수도 나와서도 안되는 한마디로 이럴수도있나 하는것이다.

이런것들은 아직도 국민의 의식수준과 정

책임안자들의 산림에대한 인식이 부족한 바탕위에서나 나올수 있는것이라 생각할때 오늘의 임업의 주소와 미래를 보는것같아 30여년간 산림만을 가꾸워온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

2. 산림에 대한 인식부족의 소치

그동안의 산림행정이 시행착오도 없지않아서 많은 산주들의 불신과 외면을 당하여왔던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산림청이 60년대 농림부로부터 외청으로 독립된이래 짧은기간동안에 현재의 이만큼이나마 산림조성을 하게되고 세계적인 임학의 석학들마저 경탄의 눈으로 보아 주고 있는것은부인하지 못한다.

과거 농림부의 내국에서 산림청으로 독립하게된 동기도 일반농정에 밀려 산림행정은 본연의 업무내용과는달리 항상 뒷전에 밀리고 소외됨을 탈피하고자 외청으로 독립하게된것을 우리는 상기할수있으며 만약 그당시에 외청으로 독립하지도않고 내국으로 계속 존재하였다면 오늘의 이만큼이나마도 되었을까를 반성해본다. 여기에 그 공과를 논하려함이 아니지만 최근 행개위의 결정안대로 산림청이 또다시 내국으로 흡수합병된다면 또다시 20여년전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것이다.

이것은 비록 행개위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국민이 산림에대한 인식부족과 산림을 경시하는 풍토의 밑바탕에서만이 올어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할때 그동안도 아무소득없이 30여년간을 투자와 정력을 쏟아온 우리들 산주의 입장에서 매우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림의 중요성은 언필칭 누구나 흔히 말하면서도 당장 발등에 불을꺼야만 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항상 뒷전에 밀리기 일쑤였다. 이는 국토의 66%를 관리한다는 산

림청의 연간 전체 예산이 1천억도 안되고 도의 산림국을 폐지하는가하면 녹화가 되었다고 치산사업소 등을 없애는것을 보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과거의 홍수로 인한 재해가 산림이 조성된 근년에와서는 현저히 격감되고 매년 풍년이 단순한 농업기술의 발달만으로만 알고 있을것이 아니라 산림이 조성되므로써 수원(水源)이 풍부해졌고 유기질의 비료물이 산속에서부터 나와 크게 일조하고 있음도 알려야하고, 댐을 막고 수로를 잘정비한 데서만 생색을 내게 할것이 아니라 수원의 원천이 되는 산림쪽에서도 생색좀 내게 왜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뿐이라, 맑은 공기와 물이 없이는 잠시도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이가 없건만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돈을주고 사서 마시지 않는까닭에 망각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선진 문화국이라고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한결같이 산림에대한 인식이 대단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지위가 높아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음을 숭한 정치가나 관료들이 해외나들이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것은 왜 배워오지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독일이 그렇고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부의선진국 문화의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다 그러함이 아닌가.

3. 이제가 더 중요하다.

언필칭 이제는 산림이 조성되었다고들한다. 그것이 물론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중요하고 더 할일이 많음을 알려야한다. 일반 농사에서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바쁘지 않겠는가. 실기를 하지않고 모종을 속아야하며 김을 매기 위하여는 더욱 바쁘다. 버려두면 농사는 폐농하고 만다. 산림을 가꾸는 일이 그것과 무엇이 다

르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심어진 조림목은 이제는 무육작업과 간벌등을 한참 하여야 하는데 이미 때늦은 임분이 있는가하면 빨리하여야 제구실을 할 수있는 임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농림부로 들어가면 이것이 안되느냐고 묻는자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장관의 강력한 행정지시로 지도력이 강화될것이라고 하는자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산림을 가꾸는일이 산주만 하는 일이 아니다. 위로부터 정책입안이 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의 예는 한가지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과거 산림청이 농림부내국으로 있을때 임업은 항상 당면한 농업정책에 밀려 소외되고 뒷전에 밀려 이를 탈피하고자 외청이나마 독립하게된것을 상기하고 있다. 산림청이라는 대조직의 중앙행정 기구를 가지고도 그동안 말이 많아온 터에 또다시 60년대의 조직으로 축소해서 내국으로 들어간다면 장차관은 임업인도 아니고 통제범위는 넓어져 술한 농업정책에 밀려 또다시 소외되고 산림정책은 뒷전에 처지는것이 명약관화하다. 미우나 고우나 독립된 중앙의 전문기구가 있음으로써 복잡다기화된 전문행정수요에 부응하게되며 호소도 하므로써 전문관리청의 신속한 배려도 받을 수 있다.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산림에 병해충이만연되어 헬리콥터를 지원요청했을경우 장차관은 일반 농경지의 약제 살포도 시급하므로 이미 헬기는 농경지농약살포용으로 쓰여지고 있다고할때 국장이 장차관앞에서 맥을 출수 있는 행정 풍토인가. 불문가지이다. 이는 물론 한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일은 부지기수로 임업은 또다시 소외되고 뒷전에 밀릴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산림청을 두둔하고자함은 아니나 마치 내부모가 노망이 났다고해서 의붓 부모를 맞이할 생각은 없기때문이다.